무주군, 임신·출산 돕는다

예비신혼 부부 검진·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위해 1억7천여만원 투입

무주군은 올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비 총 1억 7천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임신 전·중, 출산 후로 나눠 각종 검사 및 의료비, 각종 육아용품 등을 지원한다.

임신 전에는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혈액학검사 6종 외 18종)을 비롯한 난임부부 시술비(1회 당 50만 원 총 10회)등도 지원한다.

임산부로 등록을 하면 철분제와 엽산제, 비타민D 및 출산관리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이송하는데도 1인 9회, 최대 42만 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11종)에 대한 의료비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확대를 했다. 기존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율이 30~51%였으나 올해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유축기 등 출산·육아용품도 무료로 빌려주며 저소득층 기저귀(월 6만 4천 원)·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최대 5백만 원~1천만 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외래 검사비)와 환아 관리 지원(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서비스도 진행한다. 난청검사를 위한 외래 검사비를 지원하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총 7회)을 지원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한영순 지역보건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진행되는 체계적인 관리·지원서비스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둘째 아 출산을 앞둔 주민 이 모 씨는 "보건의료원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있는 시스템이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0명이 임산부로 등록해 관련 서비스 혜택을 누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올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장수군,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민선7기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건설'을 위해 2019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은 14일 주민복지실을 시작으로 17일까지 20개 전 부서별로 실시되며 주요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군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고회를 주재한 장영수 군수는 2019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문하고, 아울러 국·도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 군수는 "2019년은 민선 7기의 순항을 가름하는 해로 장수군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성장동력을 재창출하고, 올 한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여 살맛나는 '힘센 장수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민선7기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건설'을 위해 2019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무주군,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작

14일 발대식 가져

무주군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1백여 명이 함께 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사에서 진행한 공공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13억여 원을 투입해 4단계에 걸쳐 400명을 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공공일자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진안군 45개소로 확대

읍·면사무소로 2월 22일까지 신청

진안군은 14일 바쁜 농번기철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농번기철 일손 해소와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삼락농정 핵심 사업이다.

군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 30개소에서 올 해에는 45개소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

공동급식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인 이상이 되는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160만원과 부식비 160만원 총 32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사무소로 2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말까지 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구봉산 등산객 14명 전원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진안군 정천면 구봉산에서 산악사고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산속에 고립된 산악회 회원 14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울산 M산악회에서 겨울철 눈꽃 산행을 위해 오전 10시쯤 구봉산을 올랐다 내려오던 중에 길에 쌓인 눈과 어두워진 날씨로 인해 길을 잃고 고립돼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 구조대와 정천면 의용소방대 및 경찰 등 50여명의 발 빠른 대처로 수색 2시간 여 만에 구봉산 천황사 부근에서 발견해 영하권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과 오랜 산행으로 탈진증상이 오고 있는 등 산객들을 구조해 따뜻한 음료와 컵라면 제공, 건강 체크까지 마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무진장소방서는 겨울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위와 강풍, 빙판길 등으로 평소의 2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평지보다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날씨를 체크해야 하며, 초보자는 지리에 능통한 전문가와 동행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배터리, 렌턴, 비상식량 등을 철저히 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진안군보건소가 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노인에게 치명적이며, 수술 받은 뒤에 오는 일시적인 균혈증의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사망률은 80%에 이르러 조기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65세 미만 폐렴 사망률은 10만명당 3명이었으나 노인의 경우 10만 명당 209.1명으로 만성질환자는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에게 치명적인 폐렴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보건소는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50세 이상 진안군민으로 비용은 9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63-430-85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14일 장계터미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군 관리부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건축, 토목, 전기, 가스분야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반은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군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상태와 피난통로, 계단의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안전 위험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항은 시정 명령을 한 후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조치와 위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평상시에도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관리자도 확고한 안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군민들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 이용 시설의 비상구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